



송기진

김해준

나재철

최현만

임종룡

김석남

하영구

김남구

금융회사 CEO 광주·전남 출신 8명

90곳 분석... 지역 고교·대학 졸업 4명

‘SKY대’ 절반 차지... 50대 중반 대세

국내 90곳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 가운데 광주·전남 출신은 8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역 연고 고교 및 대학을 졸업한 CEO는 4명이었다. CEO 90명 중 절반 가량은 소위 ‘SKY대’ 출신이었고 경제·경영 전공자가 다수였다. 연령은 50대 중반이 대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금융지주회사 12곳과 은행 9곳, 증권사 30곳, 신용카드는 8곳, 손해보험사 12곳, 생명보험사 19곳 등 주요 금융회사 90곳의 CEO 출신지와 평균연령 등을 조사한 결과, 광주·전남 출신 CEO는 송기진(61·보성) 광주은행 대표이사, 나재철(53·나주) 대신증권 대표이사, 최현만(51·강진) 미래에셋생명 대표이사 등 4명이었다. 지역 연고 고교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룡(53·보성) 농협금융지주 회장, 김남구(50·강진)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김석남(61·함평) KB생명보험 대표이사, 하영구(60·광양) 씨티은행 한국투자금융지주 대표이사 등 4명이었다.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룡(53·보성) 농협금융지주 회장, 김남구(50·강진)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김석남(61·함평) KB생명보험 대표이사, 하영구(60·광양) 씨티은행 한국투자금융지주 대표이사 등 4명이었다.

금융권 CEO의 절반은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SKY대’ 출신이었다. 서울대가 18명으로 가장 많고 고려대 14명, 연세대 12명 순이었다. 한국외대 8명, 성균관대 4명, 서강대·한양대·중앙대 각 3명, 동국대·건국대·명지대·동아대·영남대·부산대·전남대 각 2명으로 뒤를 이었고, 홍익대, 이화여대, 경북대, 조선대, 전북대, 청주대, 국제대 출신이 각각 1명, 외국에서 대학을 나온 CEO는 3명, 고졸 출신이 1명이었다.

■광주·전남 출신 금융회사 CEO현황

금융사	이름	나이	고등학교	대학교
광주은행	송기진	61	별교성고	건국대 경제학과
교보증권	김해준	55	장흥고	전남대 경제학과
대신증권	나재철	53	인성고	조선대 기계공학과
미래에셋생명	최현만	51	광주고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농협금융지주	임종룡	53	영동고	연세대 경제학과
KB생명보험	김석남	61	대정고	명지대 경영학과
씨티은행	하영구	60	경기고	서울대 무역학과
한국투자금융지주	김남구	50	경성고	고려대 경영학과

평균 연령은 만 56.4세였다. 이중 50대가 62명으로 가장 많고 60대는 23명, 40대는 5명이었다. 30대나 70대 이상은 없었다. 증권사가 평균 54.8세로 가장 낮고 생명보험 55.9세, 손해보험 56.2세, 신용카드는 57.9세, 은행 58.2세였고 금융지주가 59.3세로 가장 높았다. 최현만 CEO는 최진환 현대라이프 대표로 45세였다.

금융회사 CEO는 대학에서 경제·경영을 전공한 비율이 높았다. 총 90명 중 학부 기준으로 40명이 경제·경영학과 출신이다. 학부에서 경제·경영 분야를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향후

대학원에서 경영학 공부를 한 경우도 많았다.

금융지주와 은행, 증권사, 신용카드는, 보험사를 막론하고 여성 CEO는 손병옥 푸르덴셜생명 사장이 유일했다.

단일 학과로는 고려대 경영학과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교 출신별로는 경기고가 13명으로 압도적인 1위였다. 특히 금융지주 CEO 중에 경기고 출신이 많아 눈에 띄었다. 금융지주 CEO 12명 중 무려 5명이 경기고 동문이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 하영구 한국씨티금융지주 회장, 김한 JB금융지주 회장, 원병수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 등이다.

금융지주는 외국인인 회장인 SC지주를 제외했고 은행은 SC은행을 비롯해 지주 회장이 은행장을 겸임하는 곳은 포함하지 않았다. 증권사는 국내 주요 3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했고 보험사는 국내 보험사가 주요 대상이다. /임동률기자 exian@연합뉴스

영산강 狀 건설 이후 조류·어류 절반으로

자연생태계·수질 악화... 생태정화습지 만들어야

차대통령 “4대강 무리하게 추진된 부분 정리 필요”

4대 강 사업으로 승촌보와 죽산보 등 2개의 보가 건설된 영산강 자연생태계가 전보다 악화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수질 개선을 위해서 별도의 생태정화습지를 만들고, 장기적으로 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15일 오준성 전남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가 광주환경운동연합에 제공한 ‘영산강 보건설 이후 수질 및 수생태 변화 그리고 대안’에 따르면 영산강 상류지역과 황룡강이 합류되는 중류, 보가 건설된 하류지역 등 3군데로 나눠 어류, 조류 등 자연생태와 수질을 조사한 결과 보 건설 이후 영산강 자연생태계가 오히려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류는 상류에서 한국 고유종인 각시붕어 등 18종이 발견됐지만 하류에서는 9종으로 반이 줄었고, 조류도 상류에서 붉은머리오목눈이, 까

치 등 25종이 발견됐으나 하류에서는 15종이 발견되는데 그쳤다.

하류의 어류 개체수도 상류(44개)에 절반에 못 미치는 20개에 머물렀고, 종 다양도 또한 상류가 2.64인 반면, 하류는 1.92수준에 그쳤다. 특정 지점에서 어류가 얼마나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종 풍부도는 상류가 4.49인 반면 하류는 2.67를 나타냈다.

수질도 하류로 갈수록 악화됐다. 질소와 인의 농도가 하류로 갈수록 점차 증가했고, 중금속과 유체 금속의 유출농도도 증가했다. 특히 오·폐수 보가 설치된 영산강 하류 지역에 3~8월 사이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Biochemical Oxygen Demand) 부하량이 5mg/ℓ 이상인 만큼, 질소와 인이 유입될 경우 녹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폐수는 별

도의 생태정화습지를 만들어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를 배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승촌보에는 광주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유입되고 있어 문제가 되는데, 생태정화습지를 통해 수량 감소는 물론 오염원이 유입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흐르는 강물을 저류하는 보형태의 구조물은 영산강의 회복을 지연시킬 뿐”이라며 “수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가동보를 연중 개방해 물이 흐르도록 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보를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6일 오후 4시 광주시의회에서 ‘MB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의 문제점과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관련해 “무리하게 추진돼서 국민 체감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김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F1조직위-광주은행, 입장권 3억원 구매약정

영암에서 열리는 ‘2013 F1 코리아 그랑프리’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15일 전남도청에서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장인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송기진 광주은행장이 3억원 상당의 입장권 구매약정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개호 F1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오른쪽은 최현호 광주은행전남서부영업본부장. 올 F1대회는 10월4일부터 6일까지 영암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에서 열린다. <전남도 제곡>

통합진보, ‘4대강사업 직무유기’ MB 검찰 고발

통합진보당은 15일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오병은 원내대표와 안동섭 당 사

무총장 등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방문,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정경길 전 대통령실장, 정종환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권대균 전 조달청장 등을 함께

고발했다.

오 원내대표는 앞서 동작구 대방동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 4대강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드러남으로써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고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지경기자jpark@kwangju.co.kr

이동필 장관 영암 목욕탕 온 까닭은?

朴 대통령 “노인 위한 목욕시설 벤치마킹” 지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바쁜 일정을 쪼개 최근 영암의 목욕탕을 찾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12일 영암군 금정면의 ‘공중목욕장’을 찾아 시설을 둘러봤다. 전남도가 목욕탕이 없는 농어촌 132곳에 예산 298억원을 들여 만든 공중목욕장은 남녀가 하루씩 번갈아가면서 목욕을 한다.

공교롭게도 이 장관이 이곳을 찾았을 때는 여성들이 목욕하는 날이어서 탕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지역 노인들만 만나고 갔다.

이 장관이 시골 벽지 목욕탕까지 오게 된 것은 지난 1월, 당시 당선자 신분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나주 화합마을을 방문했던 어렵뚫한 기억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이 장관에게 “어느 시골 노인이 지자체가 지원한 목욕탕이 생겨 살기 편해졌다고 하니 지역을 찾아 한 번 가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장관은 지난해 예산 확

보를 위해 농림부를 찾은 박준영 전남지사에게 이를 물었고, “전남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는 박 지사의 말에 영암을 찾게 된 것이다.

이 장관은 목욕탕을 둘러본 뒤 “아주 좋은 사업이며,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전남도는 목욕탕 한 곳 당 부족한 운영비 3000만원씩 모두 39억6000만원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목욕비로 1000원을 받고 있지만 운영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지방직 공채 24.6:1

올해 광주시 지방직 공개채용 평균 경쟁률이 24.6대 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2013년도 지방직 공채 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총 523명 선발에 1만2852명이 접수해 평균 2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5명을 선발하는 행정 7급에는 1195명이 지원해 239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광주시교육청도 제1회 9급 공채시험 68명 선발에 1755명(25.8대 1)이 지원했으며, 제2회 7급 공채시험은 6명 선발에 384명이 응시해 6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청년실업 문제로 공직에 대한 선호경향이 강해진데다 2009년부터 응시연령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공직경쟁률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박진표기자lucky@

신협대출

한도는 캐피탈만큼! 금리는 은행만큼!

담보대출 - 한도 25억원

- * 상가대출
- * 아파트대출
- * 원·투룸, 나대지 대출
- * 임대 전세보증금 대출
- * 차량대출
- * 기타대출

신 용 / 정책자금대출

- *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 2,000만원 한도
- * 자영업자 햇살론 - 2,000만원 한도
- * 자영업자 신용대출 - 일일상환 대출

- * 직장인 햇살론 - 1,000만원 한도
- * 직장인 신용대출 - 마이너스 대출

낮은금리로 원하는 대출을 필요하신 만큼! 친절환 상담으로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 본 점 | 공동 예술의 거리 227-4474
| 금호지점 | 금호지구대 옆 383-4474
| 풍암지점 | 신암초등학교 앞 653-4474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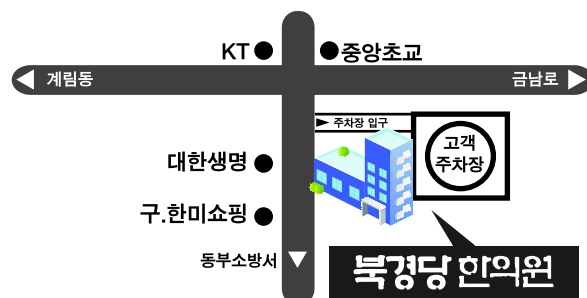
북경당 한의원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클리닉

체성분 분석기 도입, 체지방분해침 시술, 고주파 지방분해 시술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진료문의 062)227-7575

※ 대면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8813호-증-26%로

진/료/시/간
평 일 : 오전9시~오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후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스마트폰 비즈니스를 선도 할
전국지사 / 대리점 및 딜러 모집

- 모든 기술 제반 본사 지원!
- 영업/마케팅을 통한 확실한 수익보장!
- 개인/기업 누구나 참여 가능!

더 가까운 서비스란?

- ▶ 스마트폰으로 상대방의 명함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스마트 명함

- ▶ 오프라인의 출입카드를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출입카드

- ▶ 강력한 스마트폰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스마트폰 서비스



〈특허출원〉
10-2013-0019348

“당신의 성공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 드립니다”



주식회사 더 가온

☎ 02)6925-2558/ 010-8794-7609
www.thegaon.co.kr

사 원 모 집

사계절 푸르른 양잔다, 친환경 나비의 고향 함평다이너스티 CC에서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부문

- 웨이터, 웨이트레스, 주부사원(신입 및 경력) 0명
- 조리사 0명

■ 자격요건

- 고졸이상 학력 취득자
- 경력자 우대

■ 급 여

- 연봉제 1,900만원이상(퇴직금 별도)
- 경력자 면접 후 결정(이력서 우측상단에 희망연봉 기재)

■ 복리후생

4대보험 가입, 숙식제공, 각종 수당 지급, 경조사지원, 우수사원포상, 단체산해보험가입, 교통비 지급 등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형방법

- 우편 및 이메일, 방문 접수
- 접수기간 : 총원시까지(총원시 조기마감)
- 서류접수 후 면접일자 개별통보

■ 접 수 처

- 주 소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1-6
- 담 당 : 경영지원팀 오승태 부팀장
- 전 화 : 061)320-7717
- 팩 스 : 061)320-7710
- 이메일 : seungtae01@naver.com

함평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